

# 성교통

황경진 박사 그레이스병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 성교 시에 오히려 통증을 느낀다면 참 난처한 일이다. 성교통은 성교 전후나 혹은 성교 시에 성기뿐만 아니라 하복부에서 불편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 심한 경우엔 성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증으로 인해 성교 기피증으로까지 진행된다. 2/3의 여성에서 한 번 짚은 경험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병원에서 상담하는 가장 많은 성문제 중 하나이다.

성교통은 성교 시 언제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침실 주위에 시부모나 아이들이 가까이 있거나 혹은 산만한 환경으로 인해 집중이 잘 안 되는 때에만 성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결혼 처음부터 시작된 경우도 있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결혼 후 약 10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생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성교통의 유무는 심리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정서적인 요인 등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

성교통이 문제가 되면 대부분은 성 배우자와 서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부위에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성교통은 대부분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기 쉬우므로 성교통을 호소할 때는 유년 시절에 혹시 성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나, 혹은 종교적인 문제 또는 윤리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성에 대해 잘못된 고정 관념이나 죄의식, 혹은 불쾌한 기억 등으로 성교 중 자꾸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지 않고 수축되며 경직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부인과적으로 정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엔 산부인과에서 즉시 진찰하는 것이 좋다.

즉, 다시 정리 해보면 성교통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부인과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1. 처녀막 입구가 너무 딱딱한 밴드처럼 신축성이 없을 때나 질 입구에 바소린낭종 같은 종양이 있을 때, 혹은 질염이나 방광염이 있을 때이다. 이 때는 적절한 약물 치료나 간단한 수술요법이 필요하다.
2. 때론 질 분비물이 너무 없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엔 성교 전 전희 시간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모유수유를 할 때나 갱년기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이 때는 에스트로겐 연고나 약제를 쓰면 좋다.
3. 내막증이나 골반염 혹은 골반내 종양 등이 있을 때도 통증이 올 수 있으며 역시 질환에 따른 부인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4. 질 중간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선천적으로 질 길이가 짧은 경우나 방광염 요도염이 심한 경우이다.
5. 삽입을 깊이 했을 때 성교통이 있을 때는 자궁 내막증이나 만성 골반염, 자궁 후굴이 심한 경우 혹은 분비물 자체가 너무 적어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염증 확인을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여야 한다.

### 둘째,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이다.

성교 자체에 문제 되는 잘못된 습관이 없는지, 혹은 과거 성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지, 성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이 없는지,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담해 본다.

따라서 성교통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여성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먼저 충분히 이야기 해 보고 진료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엉뚱하게도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